

단구수량은 239 kg/10a으로 가장 많아 춘파재배에 유리해 보였다. 난지형(대서종)의 대서종은 단구형성율이 54%, 상품성 단구비율이 35%, 상품성 단구수량은 121 kg/10a으로 단구형성과 단구수량은 한지형(단양종)보다 양호하였으나 중간형(DL01)보다는 높지 않았다.

파종시기별로 2월 23일의 춘파에서는 단구형성율이 49%로 높았고, 상품성 단구비율이 43%, 상품성 단구수량은 234 kg/10a으로 가장 많아 상품성 단구생산을 위한 적합한 파종시기로 판단되었다. 3월 16일의 춘파 이후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단구형성율은 높아졌지만, 총수량과 단구수량은 점차 감소되어 상품성 단구생산에 불리하였다. 총수량은 10월 26일의 추파가 755 kg/10a로 가장 많았지만 단구형성율이 18%로 가장 낮았고, 상품성 단구수량도 140 kg/10a으로 2월 23일의 춘파보다 적었다. 단구생산을 위한 적합한 생태형과 파종시기는 중간형(DL01)의 10월 26일의 추파 혹은 2월 23일의 춘파가 가장 유리해 보였고, 난지형(대서종)의 대서종도 2월 23일의 춘파가 다른 파종시기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파종시기에 따른 생태형(품종)별 총수량의 변화는 Fig. 9와 같다. 생태형별로는 한지형(단양종)의 총수량이 많았는데, 파종시기 별로는 10월 26일 추파의 수량이 가장 많았고, 춘파재배에서는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수량은 감소되었다. 파종시기 지연에 따른 생태형별 총수량의 감소폭은 한지형(단양종)이 가장 적었고, 중간형(DL01)이 가장 크게 감소하여, 4월 5일의 춘파는 10월 26일 추파의 793 kg/10a에 비하여 총수량이 16.4%에 불과하였다.

생태형 및 파종시기에 따른 상품성 단구수량의 변화는 Fig. 10과 같다. 생태형별로는 한지형(단양종)의 상품성 단구수량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었고, 중간형(DL01)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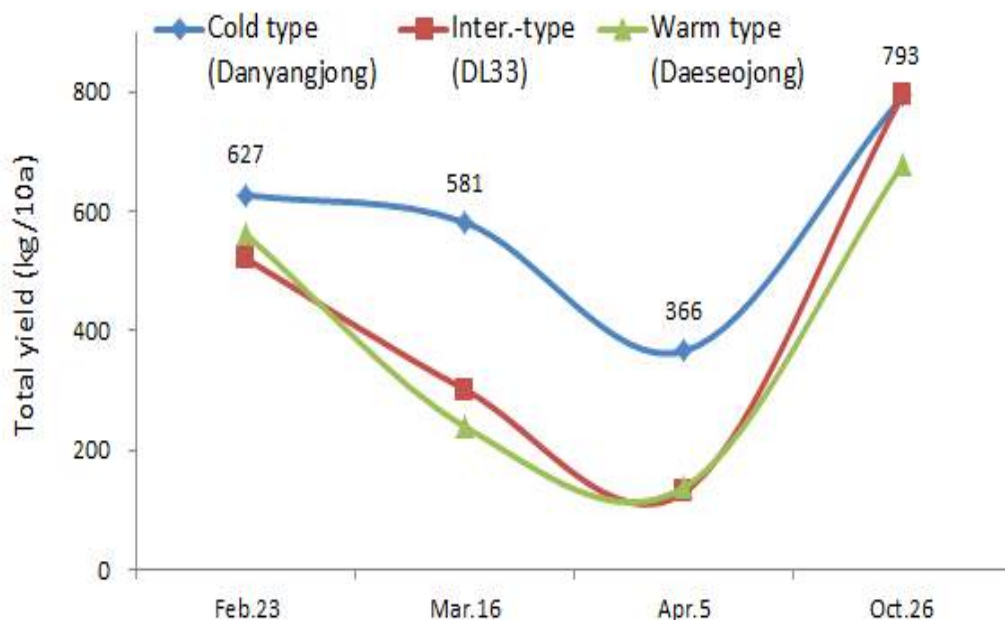


Fig. 9. Effects of ecotypes and planting dates on the total yield in the cultivation of garlic

파종시기 별로는 중간형(DL01)의 10월 26일 추파가 417 kg/10a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